

# 高麗·塑木佛像의 研究

—元曉寺 塑千佛像과 鳳林寺 木阿彌陀佛像을 中心으로—

## 文 明 大

### I、머리말

글쓴이에게 주어진 제목이 고려시대의 塑佛像과 木佛像에 대한 연구이어서 두가지의 다른 재료의 불상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므로 결코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체제화가 될 수 없다면 모든 塑佛像이나 木佛像을 모두 거론하는 것 보다는 그 대표적인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소불상한 종류와 목불상한 점을 골라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글의 성질상 당시의 소불상과 목불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각 장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글의 제Ⅱ장으로 우선 소불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元曉寺의 塑佛像들을 논의했다. 고려시대 소불상을 간단히 요약한 후 元曉寺 塑佛像의 현상을 살펴 보았으며, 이들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문제, 그리고 그 미술사적 의의를 조망해 보았다.

그 다음 제Ⅲ장에서는 고려시대 木佛像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鳳林寺 木佛坐像을 논의하였다. 우선 고려시대 목불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한 후 봉림사 목불상의 현상을 살펴보고, 이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고려불상에서 차지하는 年代와 그 미술사적 의의도 밝혀 보고자 한다.

### II、元曉寺의 塑佛像

#### 1、高麗 塑佛像 概要

고려시대에도 소불상이 대량으로 조성되었을 것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되기 쉽기 때문인 것 같다. 가령 大都穀積山 新作羅漢石室記<sup>①</sup>에

『佛像을 만드는데 이들은 대부분 金과 鐵로 모습을 이루고 구슬과 옥으로 꾸미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혹 태만하면 도둑맞고 훼손되기 쉽다. 힘이 부족하면 흠이나 나무를 쓰므로 진흙으로 뭉치고 나무로 새긴 것은 허벌어지고 파괴되기 쉽다. 石像만이 견고하고 중후하며, 간소하고 질박하여 뒷 걱정이 없는 것이다.』

고한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시피 소조상들은 많이 만들었지만 파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상은 비록 고가는 아니지만 당시 왕실 귀족층의 시주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어서 상당한 질작들도 조성되었던 것 같다. 一七七七年 王輪寺 丈六 塑佛像을 왕실에서 조성하였던 사실이나<sup>②</sup> 一三三八년에 天台 佛恩寺에 丈六 藥師三尊 塑像을 義旋大師의 발원으로 조성하였던 일<sup>③</sup>, 一三四三年에 天台法王師에 釋迦三尊 塑像과 天台大師 塑像을 조성한 사실<sup>④</sup>, 그리고 불상은 아니지만 奉恩寺의 太祖 塑像을 元宗 一一年에 移安한 기록 등에서<sup>⑤</sup> 질작의 塑造 作品들도 상당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고려시대의 塑像은 상당수 잔존하고 있지만, 보고된 예는 극히 드물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예는 浮石寺 無量壽殿 塑造佛像이다. 이 불상은 고려 초기로 알려진 지명된 불상으로 여러 번 改修되어 원모습은 상당히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침잡한 열굴, 右肩 偏袒의 근엄한 체구, 降魔觸地印의 手印 등 고려 전기 불상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塑佛坐像으로 생각된다.<sup>⑥</sup>

이 소불상에 비금갈 작품이 바로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元曉寺의 塑造千佛像이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대량으로 조성해야 하는 千佛像이나 五百羅漢像들은 대부분 塑造로 만드는 것이 통례이다. 全南海南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塑造羅漢像(주로 破片)들은 오백나한상의 일부일 것이다. 현재 東國大博物館과 국립박물관 두 곳에 소장된 이 상들은 이국적인 얼굴, 돌출한 눈알(眼球), 큼직한 메부리 코, 자연스러운 포즈 등에서 이국적인 인물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⑦ 나한 특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동국대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등에 상당수의 고려시대 소불상들이 소장되고 있지만 작품으로 거론할 만한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 가운데 개인 소장(金元基氏)의 瓦質 菩薩像 같은 것은 秀作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 후기의 塑佛像으로 대표적인 작품은 忠雨 洪城 高山寺 阿彌陀造佛坐像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담한 얼굴, 다소 위축된 듯한 단정한 체구, 느슨한 佛衣의 옷주름 등 一, 四〇〇년 전후의 고려 말기 양식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⑧ 이러한 예는 전라도 쪽에서도 필자가 조사한 적이 있고, 경복 寶鏡寺 毘盧舍那佛像 등도 있어서 이 시대 소불상들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2. 元曉寺 塑佛像의 形式

元曉寺는 光州 無等山 동쪽에 위치한 古刹인데 一九八〇년 五月 六日 大雄殿 重創佛事를 위한 땅고르기 작업 중 塑造佛頭片과 靑銅佛立像이 출토되어 六月 八일부터 光州博物館 發掘團이 발굴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塑佛像과 銅佛像 등이 수습되어 학계에 비상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⑨ 글쓴이도 두 차례나 방문하여 불상들을 살펴 보면서 불상의 특징과 편년문제 등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이 내용전 터는 원래 千佛殿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곳에서 발굴된 소불상들은 千佛음이 분명하고, 함께 출토된 塑造 獅子像과 코끼리

상(象像)의 片들은 文殊菩薩과 普賢菩薩像의 臺座이며 金銅毘盧舍那像 등의 출토 예로 ⑩ 보아 千佛의 主尊佛인 비로자나삼존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聖住寺 三千佛殿址<sup>⑩</sup>와 동일한 千佛殿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출토된 塑佛像들은 맥 수 십 점이 넘고 있다. 그러나 머리부분과 몸부분이 분리된 채로 발견되었거나 그나마 파편들이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편이나 이 가운데 거의 完形에 가까운 佛頭片은 三五점 정도이며,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佛身은 약 四〇여 점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상의 전체 모습을 復原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는 좀 더 세밀히 이들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佛頭와 佛身을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佛頭

佛頭는 모두 일정하지 않아 한 틀에 부어 조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群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대개 四形式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 ① 第一形 佛頭

이 佛頭는 출토된 佛頭 가운데 大形으로 유일한 예인데, 현재 코와 왼쪽 눈과 뺨 등이 깨어져 얼굴의 三분의 一 정도만 남아있는 셈이다. 얼굴 폭을 기준삼아 머리부분을 복원해 보면, 頭高는 약 二〇cm, 顏高 약 一三cm, 顏幅 一〇.五cm로 다른 불두에 비해서 꽤나 큰 것이다. 크기로 보아 本尊 毘盧舍那佛은 아닌 것 같고 어찌면 全高가 六〇~七〇cm의 작은 脇侍菩薩像——코끼리나 사자상을 탄 文殊·普賢菩薩——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머리는 佛頭に 가깝기 때문에 毘盧舍那三身佛의 하나인 釋迦(化身)나 盧舍那(報身)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편이다. 코는 짧으면서도 큼직하고 눈은 가늘고 길게 표현된 명상의 눈이며 뺨은 양감이 풍만한 편으로 개성있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 ② 第二形 佛頭

현재 출토된 佛頭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 이 제 二형에 속한다. 대

개佛頭高가 1-1cm 내외이며, 顏高 6~7, 5cm, 顏幅 5~5, 5cm로 完形도 가장 많이 남아 있다. 머리는 팽이모양의 뽕족한 肉髻인데 螺髮의 머리칼은 層이 두꺼워 모자를 쓴 것 처럼 보인다. 이 나발은 작고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 얼굴은 계란모양의 타원형이지만 聖住寺佛頭에서<sup>10</sup> 볼 수 있는 양감있는 활달성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매끄럽게 손질한 예쁜 인형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처럼 매끄럽게 손질했기 때문에 얼굴 전체의 분위기는 잔잔하고 잠직한 모습이다. 이 점은 가늘게 옆으로 그은 눈과 작고 단정한 입과 입가에서 번지고 있는 미소에서 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佛頭를 독특한 매력의 세계로 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눈두덩을 충만으로 음영지게 처리하여 이선이 코끝까지 이어져도 묵하고 있다. 이 코는 짧고 아담하며, 콧잔등을 약간 평판적으로 밀은 후, 코 양끝을 조각도로 날카롭게 가르고 있다. 코와 입 사이의 인중은 도톰하고 뚜렷하며 매력적인 예쁜 입과 함께 이 불상의 특징을 잘 살려 주고 있다. 대부분의 얼굴에도 灰를 바른 후 渡金을 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어떤 얼굴은 찬란한 도금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살부분은 완전히 渡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聖住寺佛頭와 일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塑造佛의 외모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sup>11)</sup>

### ③ 第3形 佛頭

뽕족한 肉髻나 작고, 촘촘한 나발 등은 제2형과 같지만 중심 髻珠를 끼웠던 구멍이 큼직하게 남아있는 것이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다.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은 二형과 같지만, 좀 더 둥글고 양감이 풍부하며 천진난만한 미소 등 북스러우면서 옛된 표정이 역력한 얼굴을 보여 준다. 이들 얼굴에는 찬란한 도금색과 검은 필선의 수염, 입술의 붉은 색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佛頭高 9cm, 顏高 6cm, 顏幅 5cm)

### ④ 羅漢頭

이 나한의 머리는 공간이 둥글둥글한 모양인데 걸게 표현한 눈, 짧고

뽕족하고 큼직한 코, 길고 큼직한 입 등으로 굵직하고 개성 넘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 2) 身體

신체가 완전한 것은 한 점도 없고 上體와 下體가 절단된 것은 상당수 남아 있는데 이들은 부원해 볼 수 있다. 양감의 표현이 거의 없는 단아한 상체, 상체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무릎, 두 발이 보이는 結跏趺坐의 자세 등 고려 말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두 손은 현재 두 형태만 발견되었다. 하나는 거의 모든 상에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상·하로 포개 아마도 禪定印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수인과 다른 하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觸地印과 외손을 무릎 위의 발바닥에 올려놓은 손 등 두 형식이 있다.

佛衣는 通肩衣인데 가슴의 옷깃은 굵은 띠로 표현되어 불의가 일정한 두께를 갖기 시작한 것인데 주름은 간략하게 조각도로 음각하고 있다. 가슴의 승각기는 수평에 가깝게 표현했는데 굵은 띠모양 옷의 띠매듭은 채색으로 그린 독특한 모양이며, 다만 위의 매듭은 두 가닥이 음각으로 표현한 것만 예외이다. 이런 옷 특징이나 띠매듭은 고려 말 조선 전기의 불상에서 흔히 표현된 기법이며 미상불 띠 홍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3) 코끼리(象像)·사자상(獅子像)

塑造技法으로 만든 코끼리상과 사자상의 편(片)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코끼리의 기다란 코, 갈기가 달린 사자의 다리, 보살상을 올려 놓던 좌대 등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 이들은 본尊像의 脇侍像인 文珠와 普賢의 좌대였던 코끼리상과 사자상으로 생각되므로 聖住寺의 코끼리·사자상과 대비되는 띠 홍미 있는 자료인 것이다.

### 3. 樣式的 特徵과 編年

이 塑佛群像은 얼굴만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올려 볼 수 있을 만큼 생기 발달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뽕족

한 율계라든가 빈약한 체구 등에는 朝鮮朝의 특징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불상의 편년을 정하기가 꽤 모호해진다. 이러한 점을 여기서 짚을 것으로 논의해서 이 불상의 특징과 造成年代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먼저 構圖比例부터 살펴 보자. 현재 完形의 불상이 없어서 구도비율을 단정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머리·신체의 비례는 머리가 다른 불상에 비하면 월등히 커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점은 塑造千佛像의 오랜 전통인데 고려의 元五里寺址 塑佛像이나 聖住寺塑造千佛像에도 보이고 있어서 編年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신체에 비해서 무릎이 눈에 띄게 좁아진 것은 고려 말 내지 조선 전기의 대표적 인물의 불상과 흡사한 것으로 이 불상의 편년설정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一四六四年 작 圓覺寺塔浮彫佛像의 비례와 상당히 닮고 있으며, 一四五九년에 一四九三年 사이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水鍾寺 金銅佛坐像의 비례와도 흡사한 것은 주목된다. ⑩ 말하자면 十五세기 후반기에 조성된 불상과 상당히 닮고 있는데 이 점은 물론 소조불상일 경우 고려 불상에도 표현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소조불은 재료의 특성과 새로운 양식의 변화가 가장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로 고려시대에만 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두째 이 불상의 형태이다. 앞서도 보아왔다시피 完形의 불상이 없어서 형태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태는 거의 대부분 복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의 형태미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 불상은은 제각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단정·은화한 것이 가장 뚜렷한 특색이다. 율계의 뾰족한 팽이모양은 단정하고 정제된 모습이며, 얼굴의 은화하면 서도 단정한 모습과 단아하면서도 옛되고 복스러운 표정, 은근하고 정감나는 미소 등 얼마나 친근감 넘치는 단아한 얼굴인가. 이런 얼굴은 文殊寺 金銅阿彌陀佛像의 얼굴<sup>⑪</sup>과 기본적으로 흡사한 것이지만, 이 불상은은 소조상이어서 훨씬 단정·우아하며 친근감 넘치는 얼굴이 되고

있다. 뾰족한 율계는 水鍾寺 金銅佛像과 비슷하지만<sup>⑫</sup> 얼굴 표정은 상당히 다른데 소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시대적인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견해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이 얼굴은 고려 말 불상의 얼굴에 가깝다고 해야 할만한 것 같다. 특히 이 불상의 율계는 長谷寺 金銅藥師像의 것보다 약간 더 뾰족한 것이지만 제3형의 中心髻珠 구멍자리는 비슷하며 국립박물관이나 부여박물관의 구멍자리와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다. 아마도 이 당시 소조불상의 예를 좀 더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점은 좀 더 명확할 것이다.

聖住寺 塑佛 가운데 제4양식(一〇形)은 고려양식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원효사 소불상 보다는 년대가 다소 올라가므로 이 불상의 편년설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동그스럼한 어깨, 아담한 가슴, 반듯한 무릎, 단정한 손모양 등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단정한 체구는 장곡사 불상, 문수사 불상, 국립박물관 금동불상 등과 상통하고 있지만 약간 더 경직된 점이 다르다. 이 보다는 大乘寺 菩薩像이나 無爲寺 觀音像 등 조선 초기 불상과 비슷하며, 무릎형태는 수종사 금동불상과 보 다 유사한 편이다. 더구나 다소 두꺼워진 通肩衣라든가 좌우의 세로로 된 띠주름 옷깃, 가슴의 수평적인 승각기 또는 下衣의 띠모양 것들과 매듭 등의 앞에서 예로 든 고려 후기 불상들의 예와 비슷하지만 이들 보다 一五세기 전반기의 여러 작품들, 가령 대승사보살상이나 원각사탑부조상들과 보다 더 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징으로 판단한다면 一四〇〇년 전후의 불상특징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 다음 양감(量感)이다. 이들 불상들이 나타낸 양감은 한 마디로 말 해서 풍만하지도 않고 빈약하지도 않은 단정한 양감을 보여 주고 있다. 얼굴의 이목구비와 근육의 표현은 고우면서도 그런 듯 처리하여, 단정 하면서도 옛된 표정을 짓게 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복식복실하게 근육을 처리하여 복스러운 표정을 짓게 한다. 등글한 어깨는 꽤 자연스럽지만 가슴은 미묘한 변화를 주어 약간의 양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양감은 앞서 예로 든 一四세기 중엽 경의 불상들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무릎의 양감은 一五세기 중엽 불상들과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이들 불상에 표현된 선들은 퍼 연결하면서 보다 유연한 것이 특징인 것이다. 즉 얼굴윤곽선은 퍼 부드러운 편이지만 코에서 눈썹으로 연결된 선은 간결하며 눈이나 입술을 이루는 선의 흐름은 명료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선의 특징은 신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어찌나 가슴의 주름과 머, 무릎에 표현된 옷주름 등의 간결하고 단 순명료한 것이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선의 특징은 고려 후기 금동불상에 나타난 선묘 보다 좀 더 단순 명쾌하고 일면 지나치게 간결하여 一五세기 중엽 경의 원각사탑 부조같은 여러 불상들의 선과 상당히 상 통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 말기 불상의 특징이 몇 가지 보이는가 하면,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도 표현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편년설정이 힘들겠 지만 一四세기 후반기 불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말하자면 조선조 불상양식으로 넘어가면 배인 一, 四〇〇년 전후의 불상 양식으로 보면 대차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4. 名稱과 意義

현재 발견된 塑佛像은 一〇〇여 점이 훨씬 넘고 있다. 이렇게 大量으로 조성되고, 이들 불상들이 거의 흡사한 것이라면 千佛像 밖에 없다. 옛부터 千佛像을 殿閣에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할 경우 塑造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一, 〇〇〇점 내지 三, 〇〇〇점의 불상을 일시에 조성하자면 가장 경제적이고 제일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것은 흙으로 빚어 만드는 塑佛 밖에 없다. 나무로 만든 木造佛像도 손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짚고, 다듬고 하는 과정은 塑佛 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 다. 金銅佛像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小像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하기 위한 千佛像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延嘉七年 銘 金銅佛立像이다.

이런 까닭으로 옛부터 塑造로 千佛像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 첫째로 元五里 塑佛像群이 있다. 이 불상들 역시 한 틀로 찍어 만든 테라코타식 불상인데 한 조각터에서 대량 출토되었으므로 千佛像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sup>17)</sup> 백제의 定林寺 塑佛像도 千佛像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한 장소에서 同一形의 불상이 대량으로 출토 되기 때문이다.<sup>18)</sup> 千佛像이 명백한 것으로 新羅聖住寺 千佛塑佛像이 있다. 聖住寺事蹟記에 보면 毘盧舍那佛像과 三千佛像을 新羅 文聖王(八三九~八五六) 때 王의 願佛로 조성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신라 말 내지 고려 초기의 기와 가운데 「千佛當草」의 銘瓦들이 많이出土되고 있는 사실이나, 신라불상 이외에 고려불상이 상당수 되는 것 등을 보면 어찌면 신라 때는 千佛만 조성했다가 그 후 말이나 조선 초기의 중창 때 三千佛로 확대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塑造 千佛像과 여러 가지로 흡사한 것이 元曉寺의 塑佛像이다. 크기(높이)에서도 성주사 불상이 三七cm 내외이고, 원효사 불상이 三〇cm 내외이어서 원효사 불상이 약간 작지만 모두 아담한 불상인 점은 동일한 것이며, 만든 기법 역시 흙을 빚어 불상을 만든 후 燒成도가 낮게 구워낸 테라코타식으로 조성한 점, 또는 비슷한 크기와 유사한 양식의 불상이 대량으로 한 곳에서 출토된 점 등이다.

따라서 원효사 소불상은 성주사 천불상처럼 千佛 또는 三千佛像으로 조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千佛像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大乘佛敎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다. 대승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니 공간적으로 다른은 하계이건 이 지구이건 어느 곳에서나 부처는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과거·현재, 미래의 어느 때나 부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부처님, 즉 無量한 부처님의 상징인 千佛像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다는 것으로 이를 믿고 확신하므로써 끊임없이 수도에 정진하며,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佛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최종 목표이니만큼 천불상은 대승불

교를 가장 잘 알려주는 상징인 셈이다. 이 千佛像들은 一,四〇〇年을 전후한 불교의 격동기에 도대승불교의 의지를 관철코자 간절히 발원하여 조성한 千佛像이며, 그것도 뛰어난 걸작품인 점에 그 의의가 높다 할 것이다.

### Ⅲ、鳳林寺木佛像

#### 1、高麗木佛像 概要

塑佛像 못지않게 木佛像 또한 고려 일대를 통하여 수없이 조성되었을 것이지만 모두 없어지고 현재 알려진 고려 木佛像은 몇 점 되지 않는 형편이다. 고려 木佛像으로 가장 이른 것은 木造 希郎祖師像이다. 이상은 그가 입적한 九六六년 경을 전후로 만든 것이 틀림없는 一〇세기 후반기, 이른바 一〇세기 三、四分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華嚴宗의 祖師, 즉 北岳派의 宗主로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眞影像은 스님의 眞神을 잘 살리고 있다. 노스님의 고매한 心意는 얼굴 표정에서 정확히 표현되고 있으며, 신체에서도 그의 정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리만치 강조할 데는 강조하고, 생략할 데는 과감히 생략한 뛰어난 초상기법으로 조형된 고려 초기 木佛像이다.

그 다음 중국 宋佛像에 흡사한 木菩薩像이 있다. 과연 이 보살상이 송나라 불상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고려 전기 木보살상의 한 양식을 알려 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보살상의 특징은 호리호리하고 긴 이른바 지나치게 늘어진 것이 특징이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며, 머리에 쓴 보관까지도 높다랗다. 허리도 지나치게 길며 이 점은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로인데 한 다리를 내려 半跏한 다리나 왼손을 내린 왼팔은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가는 편이다. Boston 미술관에 있는 송나라 木보살상이나 St. Louis 미술관의 宋 木보살상 등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앞으로 국적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상과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살상(국립박물관, 八二三九)이 있다. 활처럼 오른쪽으로 휘어진 서 있는 이 보살상은 바위결처럼 자연스런 조각한 대좌 위에 서 있는 입상으로 얼굴이 좀 더 풍만해지고 팔이나 신체 역시 통통하고 풍만한 편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늘어진 모습이다. 이 역시 송 木보살상들과 상당히 닮고 있어서 고려 작품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얼굴의 표정이나 체구의 기법에서 고려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려 후기 작품은 여러 점 남아 있겠지만, 현재까지 걸작들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필자는 철저히 조사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鳳林寺 木佛像이다.

#### 2、鳳林寺 木阿彌陀佛像의 形式

京畿道 華城郡 南陽面 北陽里 산록에 있는 조그마한 절인 鳳林寺의 법당에 단독으로 봉안된 主佛이 바로 나무로 된 阿彌陀佛坐像이다. 이 불상은 佛像 造成改金記에 의하면 고려 恭愍王 十一年인 一三六二년 三월을 下限으로 조성되었음이 분명한 木佛像이다.

##### ① 造成改金記

至正二十二年壬寅三月日

堂主無量壽如來改

金請緣勳軸

##### ② 改金記

萬曆十一年癸未八月二十八日鳳林寺堂主無量

壽改金請緣勳軸

이상의 造成・改金記에 보면 一三六二년 공민왕 十一年에 造成되었고, 一五八三年 朝鮮 宣祖 十六年 八월에 改金佛事를 한像으로 상당히 중요한 고려 木佛像 임이 분명하다.

이 불상의 얼굴은 가름하면서 단아한 十四세기 전반기의 불상 얼굴,

가령 文殊寺像이나 長谷寺佛像의 얼굴들과 흡사하지만 이마 부분이 좀 더 넓어진 반면 턱과 얼굴 중심부인 눈·코·입 부위가 좁아져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인상을 보여 준다. 또한 단아한 얼굴 표정은 서로 닮고 있지 만 이 불상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좀 더 端嚴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눈은 가늘면서도 길게 위로 치켜 올라갔고, 코와 입은 물론 이마의 白毫까지 얼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하여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머리 부분은 육계의 표시가 불분명한 채로 큼직하며, 螺髮의 머리칼은 작고 촘촘하여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는 데, 머리 가운데 中央髻珠도 작다. 머리 꼭지에는 頂上髻珠가 병 모양으로 따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후대의 첨가로 생각된다. 가슴도 넓고 어깨도 전장하여 당당한 체구를 이루었는데, 팽팽하고 등글게 처리한 어깨나 가슴이 이루는 긴장된 부피감은 당당한 체구와 잘 어울리고 있다. 그러나 양쪽 어깨가 앞으로 숙여져 약간 움추린 모습처럼 보이는 데 이것은 十四세기 후반기 불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U형으로 벌어진 가슴에는 젓가슴이 처진 것처럼 표현되었는데, 이 점은 아랫배가 다소 나와 팽만감을 보인다던가 전강해진 상체와 함께 문수 사불상이나 장공사불상의 늘씬한 허리 처리와는 다른 단단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요체이다. 이러한 모습은 무릎을 완만하게 처리하지 않고 직각으로 세워 무릎 상부를 평평하게 만든 점과 함께 늘씬한 모습보다는 다소 무게(重量感)있는 중후(重厚)한 체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른 발이 위로 올라 간 吉祥坐의 자세에 왼손은 가슴에서 평행되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가슴에서 손바닥을 보이면서(外掌) 엄지와 중지를 맞대는 下品中生印의 변형을 표현했는데, 비교적 당당한 모습을 제외하면 문수사 아미타상과 비슷한 아미타불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불의를 입는 着衣法은 문수사 아미타불상과 동일하지만 옷주름은 단순 명료하지 않고 한결 복잡해지고 있는데 왼쪽 어깨의 大衣 깃과 옷주름이 네가닥이며, 어깨에서 시작하여 팔로 내린 주름 역시 七가닥으로

내려 팔꿈치에서 O형으로 표현했는데 문수사불상이나 장공사불상보다 좀 더 복잡하고 한결 탄력적으로 묘사했다. 尋香寺 乾漆佛坐像이나 開運寺 乾漆佛坐像<sup>22)</sup> 등 十四세기 후반기 불상들에서 이러한 착의법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鳳林寺佛像이 가장 확실한 예일 것이다. 또한 U형으로 벌어진 가슴에 젓가슴을 처지게 표현하였고, 승각기 치레와 띠 매듭도 사라졌으며, 띠매듭 대신에 이 부분의 세 줄의 옷주름을 표현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이 시기 불상 형식의 가장 뚜렷한 예인 것이다.<sup>23)</sup>

크기

全身高 八八、五 cm    頭 高 三一 cm  
 顏 高 一八、四 cm    무릎폭 七八 cm

### 3. 樣式的特徵과 編年

高麗 後期 佛像의 樣式은 一四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一四세기 전반기 양식에 속하는 불상 가운데 조성년대가 분명한 것이 몇몇개 있어서 이 시기의 양식적 특징은 어느 정도 밝혀 낼 수 있지만, 一四세기 후반기에 속하는 불상으로 조성년대가 확실한 것은 二例 밖에 없어서 이 시기의 양식적 특징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봉림사 목아미타불상은 조성년대가 확실한 거의 유일한 예로써 당시의 양식적 특징과 불상편년 설정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구도 비례, 형태, 선, 양감 등에 따라 양식적 특징을 밝히면서 아울러 편년문제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 1) 構圖比例

이 봉림사불상은 원래 三尊像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본존불만 남아 있을 뿐이며, 그나마 光背, 臺座 모두 없이 佛身만 잔존하고 있어서 構圖의 인 특징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比例面에서의 특징만을 밝힐 수 밖에 없는 편이다. 이 불상은 머리 높이 對 佛身 높이가 一·二·二이며, 얼굴길이 對 佛身 높이 一·四·八이어서 장공사나 문수

사 불상의 一·三과 一·四, 六의 비례에 비해서 신체 보다 머리부분이 커진 것을 알려 준다. 말하자면 좀 더 위엄있고, 좀 더 당당해진 것을 알려 주는데 앞 시대의 단아한 아름다움에서 보다 당당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나 할까. 이것은 무릎 너비對 불신 높이가 一·一, 一로서 앞 시대의 一·一, 三 보다 늘씬하지 않고 전장해진 점과 함께 이 시대 불상 양식의 변화를 잘 알려 주는 것이다. 이 불상과 비슷한 심함사 불상과 비슷하지만, 심함사 보다 는 덜 당당한 것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차 전장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말하자면 一四세기 전반기의 비례 특징은 머리와 신체, 무릎과 신체의 비례가 늘씬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데 비하면 이 봉림사 불상은 좀 더 중후하고 한층 장중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 특징이 바로 이 시기 불상 양식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몇 예로 보아 분명하며, 따라서 이 작품은 이 시기 불상 비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2) 形態

봉림사 불상의 형태는 앞 시기 불상형태의 특징인 단정하고 우아한 형태미에서 좀 더 진전되어 근엄하고 장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둥근 얼굴이 크고 근엄해서 중후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밀조밀한 눈·코·입이나 단단한 안면(顔面) 근육의 표정과 함께 생경한 위엄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넓고 튼튼한 가슴과 등글고 팽팽한 어깨, 든든한 배 등에서 풍기는 위엄 넘치는 신체는 장중한 분위기를 더 해 주고 있다. 이 장중스러운 탄력감이나 자비스러운 형태미와는 다른 다소 생경해 진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중후함이라 하겠다. 이것은 앞 시기의 불상들 보다 전신을 앞으로 휘썬 숙인 자세에서 나타나 는 위축감도 덜 붙여져 이런 특징을 보다 실감나게 하고 있다. 상반신(上半身)을 눈에 띄게 숙이는 자세는 심함사 불상이나 一三九五년 작 장륙사 보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 시기 불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생각된다.

또한 가슴과 팔로 접혀내린 복잡하고 팽팽한 옷주름과 팔뚝치의 Ω형

주름, 그리고 一四세기 전반기의 불상과 불화에 가장 눈에 띄게 표현된 승각기 치레와 독특한 띠매듭 등이 사라진 것도 이 불상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런 점은 아마도 이 시기 불상의 일반적인 경향임이 분명한데 봉림사 불상은 바로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저명하고 기준되는 작품으로 주목되고 있다.

## 3) 筆線

봉림사 불상에 표현된 선은 탄력적인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는 둥근 맛이 가미되어 독특한 묘미를 더 해 준다. 옷주름선은 보다 번잡해지고 한결 힘을 느끼게 하는 필선으로 중후한 형태미와 조화되어 이 불상을 장엄한 세계로 이끌어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 시기의 불상들에서 보이는 간결하면서도 회화적인 유려함과 는 상당히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명쾌한 선을 이루고 있는 점은 비슷한 것으로 좀 더 진전된 양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찬 선묘는 이 불상을 보다 장중하고 한결 생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어쨌든 이 불상의 선은 고려 후기 불화에서 보이는 필선들과 상당히 닮고 있는데 一三二〇년 阿彌陀九尊圖의 선묘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흐르는 듯한 필선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불상의 선묘는 보다 탄력적이고 훨씬 힘찬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이 불상은 당대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 4) 量感

이 불상의 부피감은 부드럽고 탄력적인 부피감을 볼 수 없는 단단한 양감을 느끼게 한다. 이 점은 얼굴에서도 나타나 한결 근엄해졌는데, 이런 얼굴 특징과 더불어 어깨가 이루는 팽창력이나 무릎의 단단한 양감, 당당한 가슴 등은 이 불상만의 독특한 개성이라 하겠다. 이런 점은 심함사 불상이나 개운사 불상 등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지만 이 불상이 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앞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이 불상은 一四세기 전반기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였으니 장륙사 불상이나 문주사 불상에 나타난 단아한 특징

들 보다는 더 진전된 양식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불상은 一三五〇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약간 늦은 년대로 편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좀 더 튼튼해지고 위축된 尋香寺佛像이나 莊陸寺菩薩像(一九三五年 작) 보다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불상은 腹藏品の 造成改金記에 보이듯이 공민왕 一一年 一三六二년 작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듯하다.

#### 4. 名稱과 意義

이 불상은 造成 改金記에 보이듯이 無量壽如來 즉 阿彌陀佛像이다. 아미타불상은 壽命長壽하고 極樂往生을 바라는 수 많은 중생들의 귀의 불로써 우리 나라 역대를 통하여 많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기의 불상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아미타불상들이라는 것은 주목된다. 文殊寺 金銅阿彌陀佛像坐像, 國博 金銅佛坐像, 扶餘博物館 金銅佛坐像, 開運寺 乾漆坐像, 尋香寺佛像, 高山寺佛像, 申菴寺 金銅佛坐像 등 현존 불상의 절대 다수가 바로 아미타불상인 것이다. 이런 것은 현존하는 불화가운데 절대 다수가 바로 아미타불화인 점과 함께 이 시대의 신앙 경향을 알려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하겠다. ㉔ 물론 당시 불화의 조성이나 불상 조성을 기록에서 보면 아미타불이 특별히 많이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고 있는 예로 보면 당시 모든 계층에서 아미타불상을 즐겨 조성했고, 그것이 계속 인기를 얻어 신봉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 불림사의 나무로 만든 불상도 阿彌陀佛像으로 각계층의 다수인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신앙 경향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시기 중생들의 신앙심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아미타불상은 金銅佛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점이 두 번째 의의라고 하겠다. 木佛은 塑佛과 더불어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歸依佛로 조성되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다. 이러한 불상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불림사 불상이 현존하고 있

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더구나 이 목불상은 금동불상 이상으로 당대의 걸작에 속하는 불상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나무이면서 최고의 걸작을 만든 수 범은 민중들의 진실한 염원이 알알이 배어 있지 않으면 조성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 불상은 지고의 정성으로 조성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塑佛像과 木佛像을 대표적인 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흙으로 빚어 만든 塑佛像과 나무로 조각한 木佛像은 歷代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를 통하여 가장 애용된 불상들이자 가장 대중적인 불상들이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조성되었지만 훼손되기 쉽고 파괴되기 쉬운 점 때문에 현존하는 예는 극히 희귀한 편이다.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의 불상으로 당대에는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귀하게 취급되는 금속상 보다 더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塑佛像과 木佛像의 희귀한 현존 예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고려시대 소불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는 元曉寺 千佛塑像들이다. 이 불상들은 비록 작은 불상에 불과하지만 고려 후기의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당대를 대표할 만한 소불상인 것이다. 이 불상은 千佛像으로 추정되므로 고구려시대부터 千佛像을 塑佛로 조성하던 전통이 이 불상에까지 연면하게 이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 작품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 聖住寺址 塑造千佛像과 대비되고 있다.

木佛像은 현재까지 발견된 예는 희귀한 편인데 불상으로서는 鳳林寺 木阿彌陀像이 유일한 예이다. 이 불상은 一四세기 후반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걸작품인데, 一三六二년을 下限으로 조성된 불상이므로 당대의 양식적 경향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圖 1. 元曉寺 塑佛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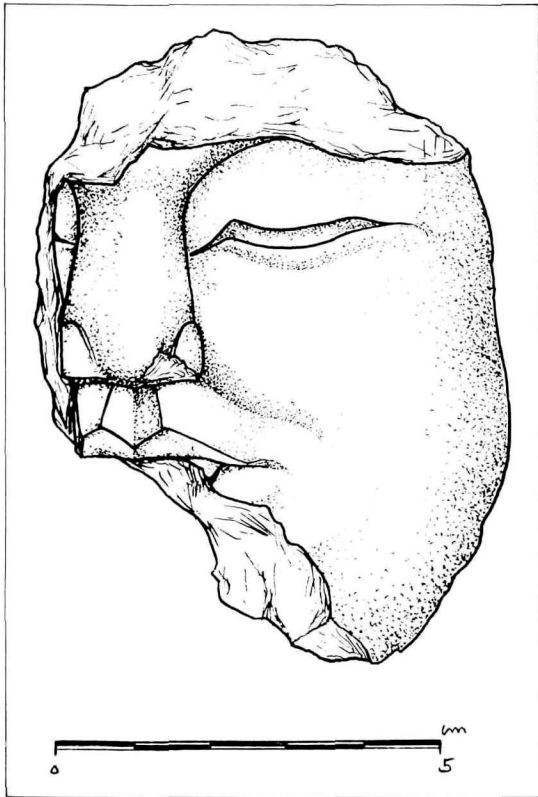


圖 3. 塑佛頭 (第 1 形式)



圖 2. 元曉寺 塑佛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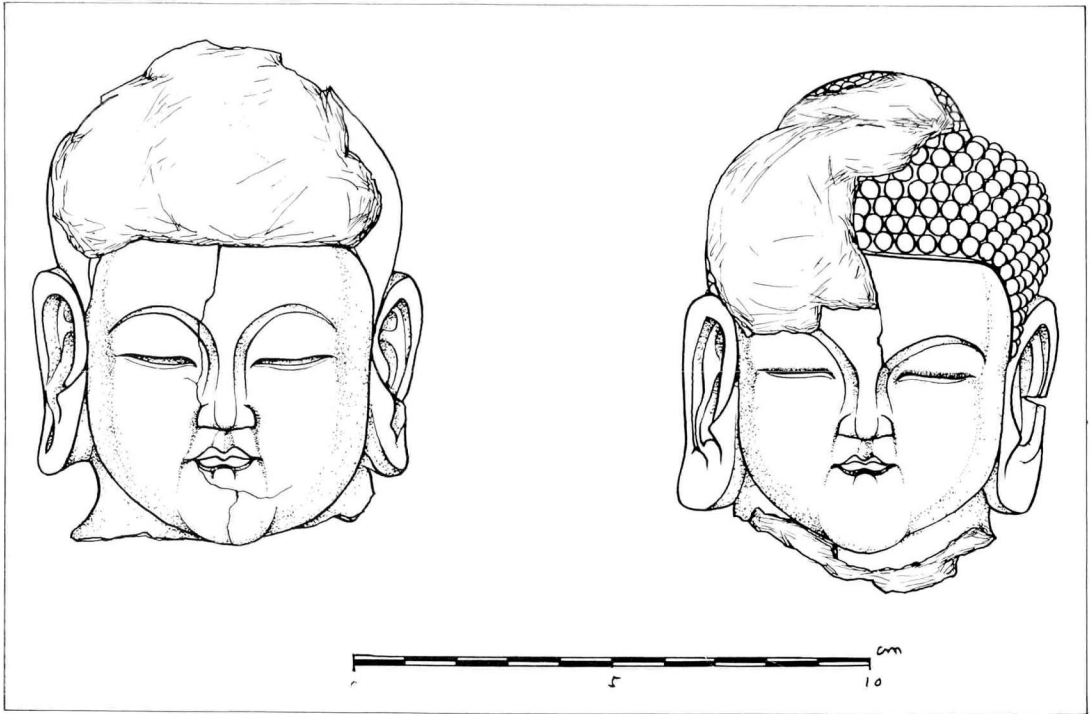


圖 4. 塑佛頭



圖 5. 元曉寺 塑造佛像 佛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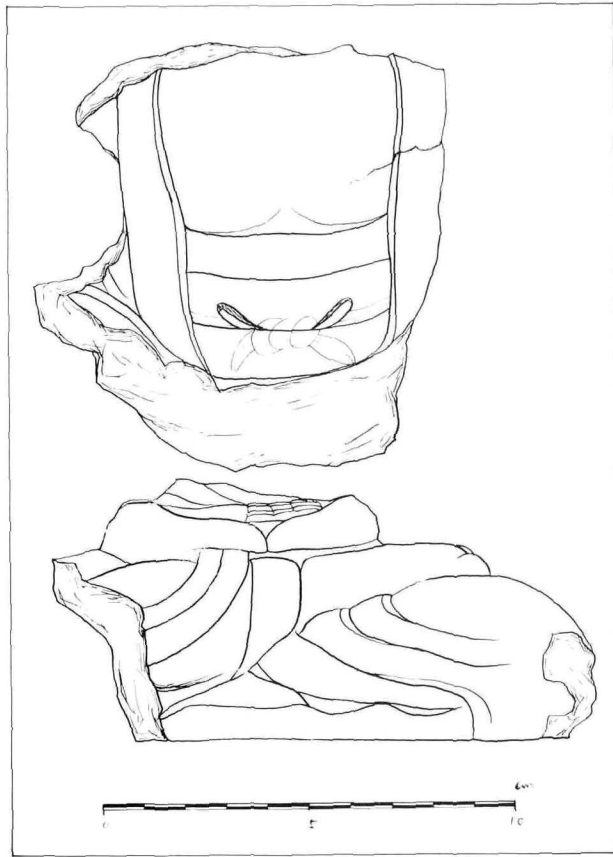


圖 6 塑佛身



圖 8 鳳林寺 木阿彌陀佛坐像



圖 7 鳳林寺 木佛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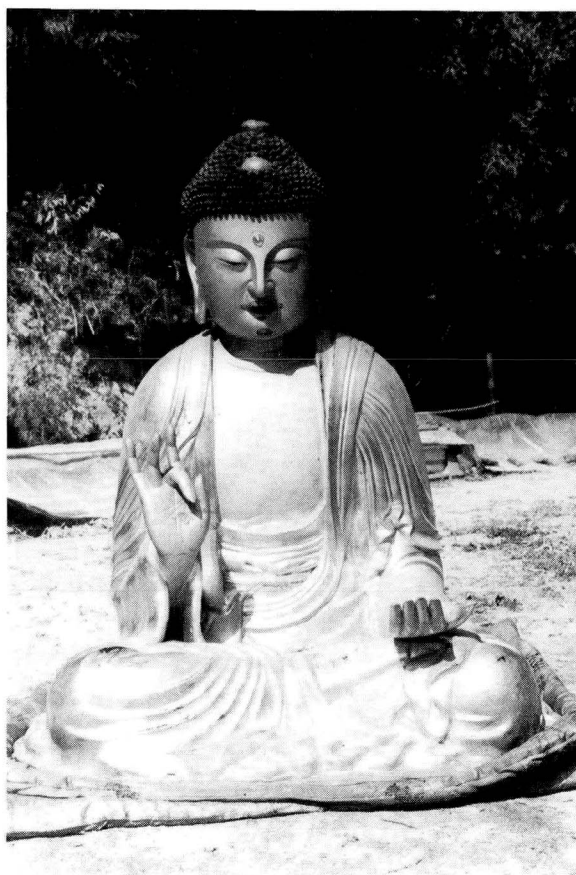


圖9 尋香寺 乾漆佛坐像



圖11 開運寺 乾漆佛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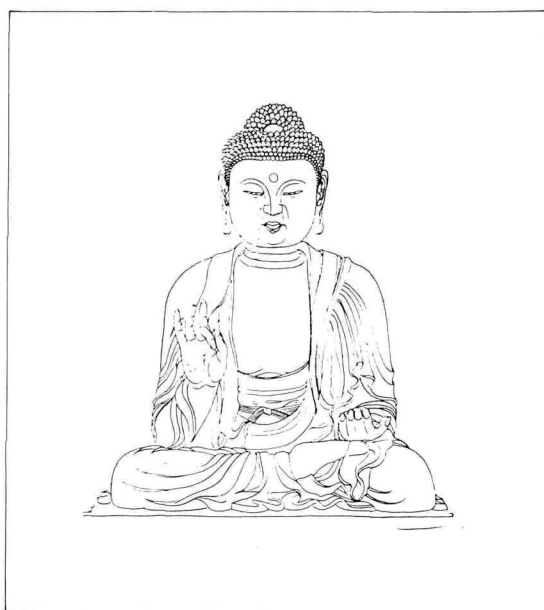


圖10 尋香寺 乾漆佛坐像

이 두 불상은 고려 후기 불상 중 소불상과 목불상을 대표할 뿐 아니라 당대의 불상 조각을 대변하는 걸작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註]

- ① 東文選 卷七一  
「……嘗觀造像設者，多範金鐵，飾之珠玉，守者或怠，輒爲人竊去，銷毀，力苟不足，乃用土木，其泥塑木刻，易至圯壤，繼於藝慢，豈如石像堅重簡質，且無後慮者哉！」
- ② 高麗史 世家 卷二八 忠烈王 三年條。
- ③ 東文選 卷六四
- ④ 東文選 卷六四
- ⑤ 高麗史 世家 卷二六
- ⑥ 黃壽永 「浮石寺塑造阿彌陀佛像」〈佛教美術 三〉一九七七。
- ⑦ 金元龍 「高麗時代의 土製羅漢頭」〈美術資料 八號〉一九六三。
- ⑧ 이 불상은 필자가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古文化 二二輯〉，一九八三。
- ⑨ 徐聲勤·柳麻理 〈元曉寺—發掘調査報告書—〉 光州博物館·元曉寺，一九八三。
- ⑩ 申法陀 〈無等山 元曉寺〉一九八〇。
- ⑪ 文明大 「聖住寺三千佛殿址 第一次發掘」〈佛教美術 二〉，一九七四。
- ⑫ 文明大 「聖住寺三千佛殿址 第一次發掘」〈佛教美術 二〉，一九七四。
- ⑬ 柳麻理의 앞글에서 언급한 第一·二形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여 第二形으로 분류한 것이다。
- ⑭ 文明大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研究」〈梨花史學研究 一三·一四合輯〉，一九八三。
- ⑮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古文化 二二〉，p. 63 참조。
- ⑯ 文明大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研究」〈앞책〉 p. 53。
- ⑰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佛畫의 考察」〈美術資料 三〇〉，一九八二。
- 尹武炳 「水鍾寺 八角五層石塔內 發見遺物」〈金載元博士回甲論叢〉 一九六九，pp. 94~96。
- ⑰ 불린菩薩像들도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있지만 千佛像도脇侍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⑱ 文明大 「扶餘 定林寺터에서 나온 佛像과 陶俑」〈季刊美術〉 一九八一，겨울호，pp. 111~120。
- ⑲ 「崇巖山·聖住寺事蹟」〈佛教美術 二집〉。
- ⑳ 文明大 「海印寺木造 希郎祖師眞影像의 考察」〈考古美術 一三八·一三九合輯〉，一九七八。
- ㉑ 一九七八년 鳳林寺 木佛像을 改金했을 때 腹藏에서 寫經，造成記 등 많은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다. 〈文化財總覽〉 指定外非指定文化財篇 京畿道，一九八〇。 등 참조。

㉒ 文明大 「앞논문」〈古文化 二二집〉，一九八三。

㉓ 高麗後期 佛像에 대해서 쓴 글은 필자의 글 이외에 다음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崔聖銀 「一四世紀 紀年銘 菩薩像에 대하여」〈美術資料 三三〉，一九八三。

鄭恩雨 「高麗 後期の 佛教彫刻研究」〈美術資料 三三〉，一九八三。

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글쓴이의 논문을 참조하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文明大 「앞논문」〈古文化 二二〉 p. 62。

㉕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文明大 「高麗佛畫의 內容과 造成背景」〈高麗佛畫〉 中央日報社。